

# 박진철 교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우리나라 현재의 대응은?

✎ 박진철 교수 | ⌚ 승인 2022.09.26 06:00 | 📄 15면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 9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 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 발병이후 어느새 3년이 다 되어간다. 코로나19는 초창기에는 과거와 달리 최신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금방이라도 소멸될 것 같았지만 3년이란 긴 시간동안 우리를 괴롭혀 왔다.

다행히 백신개발 및 접종그리고 방역관리로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매우 낮아 이제는 전염병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 같아 새삼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근 20년 동안 신종감염바이러스가 연속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 인류의 활동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가 그 주범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전염병 중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발표 및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바로 얼마전에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탄소중립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의 전문가들과 함께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스위스 취리히 도시를 방문하였다.

먼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인구 약 20여만의 도시로서 알다시피 친환경생태 및 태양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기울였고 신청사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요소인 PV설치 등으로 도시의 소비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플러스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을 건설할 때 최우선적으로 에너지효율을 고려하는 정책을 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은 이와 같은 에너지절약정책을 당연한 일상생활로 받아들이고 비록 세금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에너지절약요소를 건물에 적용함으로써 프라이부르크의 거주민 특히, 저소득층은 월세 이외의 에너지비용은 지출해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

또한 공동주택인 경우 65년 이상된 노후건물이라도 패시브와 액티브기법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최근에 바로 옆동에 지어진 신축 공동주택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관도 준수하며 에너지절감을 물론 거주만족도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인 경우는 어떠한가? 2020년 9월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이행 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지만 무늬로만 흉내내고 있을 뿐 실행과 목표달성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즉, 최근의 주요기사를 보면 탄소중립의 주요 요소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실태 항목을 파헤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후폭풍을 두려워하며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5월 정권교체 이후 정부 발표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탄소중립이라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단지 주거복지지원 강화, 부동산가격 안정, 전기요금 불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의 국민들의 생활안정 인기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접할 때 탄소중립법 실행 국가인지 의심스럽고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중요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IT분야에서는 세계최고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 및 군사 면에서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창작성, 공감대 등을 인정받아 각종 상을 휩쓸고 세계 최고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같이 재능과 잠재력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도 인류의 생존문제가 달려 있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중립이라는 건물에너지분야에서도 2025년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 달성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이행 실천에 성공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국가가 되기를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은 우리가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탄소중립의 실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박진철 교수 news@kmeconews.co.kr